

W'one point uP



소소한 일상에 음악 더하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한국서부발전의 소식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서북공감

전기로 만드는 행복



KOREA WESTERN POWER

♪ 스텔라장·ORANGE, YOU'RE NOT A JOKE TO ME!



2.8K



W'one point uP

2025 JUNE — VOL 124

#소소한 일상에 음악 더하기

#나만의 BGM

#스텔라장

#싱잉볼

#음악이 있는 여행

#음악 비하인드 스토리

소 소 한 일 상 에 음 악 더 하 기

2025 서부인의
W'one point up

〈서부공감〉 6월호에서 다같이 해볼 One Point Up은 ‘소소한 일상에 음악 더하기’입니다. 아기 시절에는 엄마의 자장가를 들었고, 학창 시절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모으느라 용돈을 탕진해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진한 연애 끝에 헤어짐이 찾아왔을 땐 세상 모든 이별 노래는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죠. 이처럼 음악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음악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긴 했겠지만, 지브리 음악으로도 유명한 히사이시 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을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음악이 필요 없었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이 존재하니까요.” 특별하지 않아 더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음악 한 조각을 함께 나눠봅니다.



물 한 컵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음악을 듣다. 별일 없는 하루의 시작이지만, 이 작은 의식 하나로
마음이 조금씩 정돈된다. 거창한 변화도, 특별한 계획도 없지만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배경처럼 깔릴 때
어느새 평범한 순간도 특별하게 느껴진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웃대는 오후엔 리듬에 맞춰 어깨를 조금 들썩여도 보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는 느린 재즈를 들어본다.
그냥 그런 하루가 음악 한 줄로 조금은 다르게 스며든다. 이 사운드가 오늘 나에게서 위로고 응원이다.
소소한 일상, 거기에 음악 하나. 그걸로 충분한 날이 있다.



소통路

소 소 한 일 상 에  음 악 더 하 기

8

WP톡톡

◦
이 순간 이 음악
나를 위한 완벽한 BGM

10

원 포인트 업

◦
싱잉볼
힐링의 소리를 찾아서!

14

빛나는 만남

◦
음악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소중한 기억으로
가수 스텔라장

18

빛나는 그곳에

◦
음악으로 채우는 파주 여행
콩치노콩크리트

22

한 번 더 UP

◦
이 음악에 이런 사연이?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린다

발행인 이정복 기획 정기웅, 조은지, 김예지 발행일 2025년 6월 20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 홍보실 041. 400. 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기획·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 786. 2999



서부路

24

서부 라이브 1

◦
서부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시간
제24주년 사창립 기념식

28

서부 라이브 2

◦
승진, 망설이고 있다면
'승진형 상향보직제'에 도전해봐~!

30

서부웨이

◦
K-가스터빈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역들을 응원합니다!
김포발전본부 기계부

34

여기 어때?

◦
고즈넉함과 생동감이 공존하는
작은 서점, 공주 블루프린트북

36

서부 클럽

◦
우리는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락스타
태안음악동호회 YK밴드

40

무엇보다 안전

◦
여름이 왔다!
장마철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합니다!

42

함께해요

◦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WP 시너지데이' 개최
협력과 상생으로 여는 동반 성장의 길

44

따뜻해요

◦
조용한 환경지킴이
몽산포 바다에 가다

46

WP NEWS

50

독자마당

이 순간

이

음악

나를 위한
완벽한

BGM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다.
그때 영화나 드라마처럼 배경음악이 깔리면
그 순간이 얼마나 극적일까. 그런 상상을 하며
모은 곡들. 이렇게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되었다.

구내식당 점심 식단표에서
안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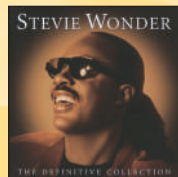


♪ 악동뮤지션 - 라면인건가

때는 11시 즈음. 점심시간 전 주린 배를 부여잡으며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오늘의 식단표를 엽니다. 아, 이를 어찌지? 안 좋아하는 메뉴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면인건가.' 그렇게 매점 컵라면을 고민합니다.

↳ 태안발전본부 경영지원처 대외협력실
그린환경부 신지훈 주임

곤히 잠들어있는
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 스티비 원더 - Isn't she lovely

이제 태어난지 6개월이 된 딸아이는 퇴근 후 집에 가면 잠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포근히 잠든 옆모습을 보면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꿈틀꿈틀 요동쳐서 행복합니다.

↳ 군산발전본부 발전운영실
이동진 사원

여행지의 창밖 야경,
그 안에 움직이는 불빛들을 볼 때



♪ 대니정 - Dreams of Heaven

여행 날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대니정의 색소폰 연주는 풍부한 거품이 올라진 시원한 생맥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추천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 감사실 감사전략부
이성훈 차장

부슬비가 내리는
주말 아침



♪ 윤하 - 빗소리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을 때의 그 느긋한 여운. 몸은 나른하게 풀려 있고, 머릿속은 맑음. 창밖에선 조용히 비가 내리는 중. 빗소리가 세상의 소음을 덮어주는 듯 고요하고, 공기는 촉촉하게 가리얏아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주말 아침에 빗소리를 들으면 일주일이 행복해집니다.

↳ 태안발전본부 1발전처 발전부
소현준 사원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지만
나만 야근해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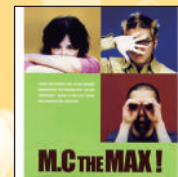


♪ 선우정아 - 도망가자

직장인이니까, 해야만 하니까 야근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입니다. "도망가자!"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럴 땐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배경 음악으로 틀면 어떨까 싶네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감미롭게 승화할 수 있습니다.

↳ 서인천발전본부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
김혜수 사원

입금과 함께 카드값으로 빠져나간
월급을 그리워하며



♪ M.C the MAX - 잠시만 안녕

언제나 등가교환의 법칙이 성립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오늘이 분명 월급날임에도 다음 월급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월급아, 가자마~

↳ 태안발전본부 2발전처 발전부
마주환 차장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 멘탈 면역력이 낮아지는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내면에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는 일이 필요하다.
홍보실 조은지 차장, 재무예산실 손민희 대리, 노사협력실 김민지 사원이
'노래하는 그릇' 싱잉볼 체험에 나섰다. “웅~” 하고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
진동에 저마다의 스트레스, 걱정과 이별을 고했다.

싱잉볼

힐링의 소리를 찾아서!

Singing Bowl



노래하는 그릇 싱잉볼 이해하기

살면서 음악이 주는 위로와 다정한 토닥임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조은지 차장과 김민지 사원 역시 수험생 시절과 취업 준비 시절 음악을 들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했다. 손민희 대리는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워킹맘의 고단함을 내려놓는다고. 세 사람은 평소 음악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노래하는 그릇(Singing Bowl)'이라 불리는 싱잉볼 수업이 더 기다려졌다고 입을 모았다.

“TV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 싱잉볼을 자주 접했는데 실제 소리와 원리가 궁금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조은지 차장의 말에 김민지 사원도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싱잉볼 소리를 찾아 들어요. 투박하게 생긴 악기에서 맑고 낮은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라며 맞장구쳤다. 뽀뽀한 워킹맘 일상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 수업에 참여했다는 손민희 대리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업은 싱잉볼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종류와 제작 방식 그리고 어떤 원리로 심신 이완 효과를 주는지 등의 강사의 설명이 이

어졌다. 싱잉볼은 구리, 주석, 금, 은 등 7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장인에 따라 금속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 또한 차이가 크다고 했다. 크기와 형태는 물론 어떤 스틱으로 두드리는지, 두드리는 사람의 손 크기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른 소리, 울림이 나온다. 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요소가 소리에 영향을 준다니 신기해요!”라며 놀랐다.

“싱잉볼은 겹겹의 소리를 낸다고 표현합니다. 잘 만든 향수가 여러 개의 노트가 겹쳐 풍성한 향을 내듯 싱잉볼도 높은음, 낮은음, 중

간음이 동시에 들리면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웅~” 싱잉볼을 두드리자 깊은 울림을 가진 소리가 공간과 세 사람을 감싸안았고, 소리와 진동이 길게 퍼지며 천천히 사라졌다.

깊은 울림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직접 싱잉볼을 체험해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손바닥 위에 얹힌 싱잉볼을 레귤러 스틱, 크리스탈 스틱, 드럼 스틱으로 천천히 두드리자 마치 다른 악기가 연주되는 듯한 소리가 퍼져 나갔다. 세 사람은



같은 그릇에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워했다. 취향에 맞는 소리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미세한 진동을 느끼려는 움직임은 진지했다. “진동이 엄청 오래가요.” “소리만 들어도 집중되는 기분이에요.” “저는 조금 기괴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어요”라며 저마다의 감정과 반응을 이야기했다.

“싱잉볼이 소리 낼 때 진동이 함께 공기 중에 전파되고, 이 파동이 몸속 깊이 세포까지 전달되면서 몸을 이완하고,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긴 시간 명상 악기로 활용되는 이유죠”라고 강사가 말했다.

이어 싱잉볼의 짝꿍 땅샤가 등장해 세 사람의 시선을 모았다. 작은 심벌즈 모양의 땅샤 소리는 맑고 강렬했다. 싱잉볼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소리라면 땅샤는 정신을 또렷하게 깨우는 소리다.

싱잉볼 음악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사운드 배스(sound bath)가 진행됐다. 사운드 배스는 싱잉볼의 깊고 풍부한 울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명상으로 시작했다. 강사가 다양한 크



기의 싱잉볼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저마다의 호흡에 집중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신비로운 연주가 끝나고 땅샤의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이 몸을 일으켰다.

“싱잉볼 연주를 듣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특히 마지막에 강사님이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해 우리를 서서히 깨우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라는 손민희 대리다. 김민지 사원 또한 “싱잉볼과 함께 땅샤라는 악기를 처음 접했는데 수공예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싱잉볼 음악에 가라앉은 몸이 청량한 땅샤 소리에 깨어나는 그 찰나의 느낌이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세 사람은 싱잉볼이 건네는 깊은 울림에 음악이 지닌 위안과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좋은 음악이나 소리를 삶에 들이는 것은 어떨까. 싱잉볼이 아니어도 괜찮다. 조은지 차장처럼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듣거나 공연장을 찾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나, 김민지 사원처럼 피아노를 다시 배워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겠다. 휴식이든, 위안이든, 치유든 음악은 우리를 꼭 안아주니 말이다.

손민희 대리

아침마다 두통이 있어 늘 커피를 마셔요. 오늘은 커피 없이 싱잉볼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두통이 사라졌어요. 놀랍지 않나요?(웃음).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힐링하고 싶다는 기대감이 온전히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조은지 차장

마음이 차분해지길 기대하며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싱잉볼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정말로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어요. 이론을 배운 뒤 체험하니 싱잉볼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다양한 소리를 찾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지 사원

싱잉볼 소리를 듣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자잘한 고민이 하나둘 가라앉고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어요. 평소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휴대전화부터 찾는데 싱잉볼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창밖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던 순간, 잔뜩 흐린 날씨가 마음에 오히려 더 살갑게 느껴졌던 날,
들뜬 마음을 가득 안고 홀로 떠났던 여행...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음악이 있어서 더 행복한지도 모른다. 음악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마법 같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담아내는 스텔라장의 음악처럼.
여름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지난 5월의 어느 날, <서부공감>에서 스텔라장을 만났다.

음악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소중한 기억으로

가수
스텔라장

평범한 하루, 음악이 만들어낸 특별한 풍경

음악은 마음에 작은 숨구멍을 틔워준다. 복잡하고 분주한 출근길을 한결 가뿐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멜로디,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방 안에 잔잔히 퍼지는 따스한 음악, 새로운 풍경 속에서 설렘을 안겨 주는 여행 중에 듣는 감미로운 선율까지, 음악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스텔라장의 음악도 그런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선명한 멜로디와 사려 깊은 가사, 그리고 담백한 보컬이 어우러진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싼다.

“데뷔한 지 어느새 10년이 되었어요. 돌아해보면 정말 폭풍 같았던 시간이었죠.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늘 묵묵히 음악에 집중하며 저만의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는 더 깊어진 시선과 감정으로 성숙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음악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종종 음악이 하나의 풍경처럼 자리 잡는다. 특정한 노래가 흐르던 그 순간의 하늘빛, 바람결,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험이 그렇다.

“따릉이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를 듣고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람, 냄새, 풍경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또 한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듣고 있었는데, 그 음악 덕분에 지하철 안 풍경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

요. 음악의 낭만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무심코 흘러가던 순간을 음악이 기억으로 붙잡아주고, 때로는 영화처럼 연출해 주기도 하니까요.”

음악적 취향을 발견하는 즐거움

음악을 다양하게 듣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막상 새로운 장르나 낯선 스타일에 다가가기 쉽지가 않다. 새로운 음악을 접하고 싶어도 무엇부터 들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스텔라장은 “다양한 장르에 귀를 열되, 자신의 감정이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음악적 취향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음악의 관심을 넓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음악 플랫폼마다 큐레이션이 잘 되어서 있는데, 큐레이션을 통해서 좋아하는 음악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도 충분히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티스트가 되기 전, 그녀는 가사와 멜로디, 아티스트의 색깔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음악을 깊이 있게 즐겼다. 하지만 음악이 직업이 된 후로는 순수한 리스너로서 음악을 듣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듣는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분석이 개입되다 보니 어느새 즐거움보다 직업적인 시선이 먼저 작동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음악 정말 좋다’는 감정이 찾아오는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음악이 다시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음악, 마음을 두드리다!

스텔라장의 음악은 우리가 보내는 일상과 맞닿아 있다. 영감을 떠올리는 순간도, 곡을 쓰는 과정도 평범한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4월에 발매한 그녀의 정규 2집 앨범 ‘스텔라이(STELLA II)’도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담아냈다. 비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흐린 날씨에 “오늘 날씨 너무 좋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Un Beau Jour De Pluie(비 오는 어느 아름다운 날)’, 줄 이어폰을 꽂고 테이프를 들으며 걸을 때 신나는 기분을 담은 ‘워크맨’, 마음이 말라 눈물조차 사라졌던 친구가 다시 울게 되었을 때 기쁜 감정으로 완성한 ‘예뻐라 슬픔아’까지. 그녀의 곡들은 마치 일기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들여다본 듯한 진솔함으로 다가온다.

“요즘은 특별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자극에 집중하고 있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팬분이 제 음악을 ‘공고한 습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음악이 누군가의 일상 속 루틴이 되었다는 건, 아티스트로서 더 바랄 게 없는 일이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순간에서든 음악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무심코 흘러보낸 하루의 틈에도, 벅찬 감정을 마주한 순간에도 음악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조용히 길을 내어준다. 어쩌면 그게, 음악이 가진 진짜 힘 아닐까.

스텔라장이 추천하는 여름 제철 음악

Orange, You're Not a Joke to Me!

🎤. 스텔라장



오렌지를 주제로 한 유쾌하고 재치 있는 곡으로, 스텔라장의 독특한 감성과 유머가 돋보인다. 일상 속 작은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한 이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든다.

BIKINI

🎤. 페퍼톤스



여름의 낭만과 설렘을 담아낸 곡으로, 밤바다의 분위기와 사랑의 감정을 경쾌한 멜로디로 표현하고 있다. 페퍼톤스 특유의 감성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Champagne Supernova

🎤. 오아시스



서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몽환적인 멜로디의 기타와 파도 소리로 시작하여 폭발하는 듯한 기타 솔로가 몰입도를 높인다.

All My Love

🎤. 콜드플레이



제목 그대로 ‘모든 사랑’을 담아 보내는 노래다. 피아노와 멜로디에 집중해 서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며 깊은 감동을 전한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차에 앉아 가장 먼저 음악 플레이리스트부터 고른다. 여행 중 음악은 졸음을 쫓고, 분위기를 끌어 올리며, 치유와 영감을 준다. 음악과 여행은 늘 함께 하는 동반자이며, 때로는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음악감상을 목적으로 떠나는 실내 여행지는 어떨까?

음악으로 채우는

파주 여행



콩치노콩크리트

음악 감상을 위한 전용공간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 회색 콘크리트 건물 한 채가 서 있다. 겉모습은 마치 미술관 같지만, 내부는 소규모 연주회장을 연상케 한다. '콩치노(concino)'는 라틴어로 '울려 퍼지다', '연주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에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를 더해 이 건물은 '콩치노콩크리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장미꽃 향기에 이끌려 코를 가까이 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다가가는 사람은 드물다. 소리는 커질수록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단지 청각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미묘한 공기의 흐름과 울림,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감동의 깊이는 달라진다. 콩치노콩크리트는 오롯이 음악 감상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가고, 음악을 듣기 위해 연주회장을 찾는다. 그 이유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콩치노콩크리트는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공간이면서도 격식에서 벗

어난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녔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이동하거나,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다.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전면 무대에는 악기 대신에 빈티지 오디오 장비가 자리한다. 1920~30년대 미국과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 오디오는 공간을 소리와 감동으로 채우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곳에는 대형 오디오가 들어와야 했기에 걸맞은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3층이 하나로 연결된 중앙홀 층고는 9m에 이르는데, 음악이 넉넉히 울려 퍼지면서도 흩어지지 않는 규모다.

전면을 제외한 곳곳에는 햇살이 잘 드는 큰 창을 두었다. 덕분에 내부 공간은 시간

LP에서 흘러나오는 음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음원과는 사뭇 다르다.
레코드에 바늘을 올려놓는 순간,
미세한 잡음이 섞인 음악은
공간을 채운다. 음악이 흘러나오며
공기 중에 층층이 쌓인
아날로그 감성은 바쁜 현대인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넨다.

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보여준다. 중앙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늦은 오후 시간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창가로 모여든다. 임진강 너머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공치노콩크리트의 건축은 단순해 보이지만, 구석구석 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에는 문이 없어 소리가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흐른다. 앉은 자리마다 전달되는 선율은 묘하게 다르다. 중앙홀은 웅장한 사운드가 온몸을 감싸고, 안쪽 깊숙한 자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틈새 공간에는 진귀한 음악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마치 작은 음악박물관에 온 것 같은데, 축음기와 턴테이블, 악기, 공연 포스터 등 음악 애호가인 공치노콩크리트의 대표가 수집한 보물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노장 스피커가 전해주는 특별한 울림

공치노콩크리트에는 웨스턴 일렉트릭의 미러포닉 M2와 클랑필름의 유로노 주니어가 놓여있다. 대형 극장에서 사용했던 빈티지 스피커다. 처음 산 스피커는 일정 기간 사용해야 음색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를 '에이징'이라고 한다. 이곳의 스피커는 무려 100여 년에 걸친 예열을 마치고, 부드러운 음색을 방문객에게 선사한다. 최고급 스피커를 들여놓은 음악감상 카페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세기의 시간을 품은 스피커가 들려주는 깊은 울림은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1만 여장의 LP 컬렉션도 이곳의 자랑이다. 신청곡은 받지 않고, 클래식, 재즈, 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다만, LP 음원만을



공치노콩크리트	
주소	경기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161번길 17
시간	월, 화, 금 14:00~19:00 토, 일 12:00~19:00
휴무	매주 수/목요일 정기 휴무
입장료	20,000원

고집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LP에서 흘러나오는 음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음원과는 사뭇 다르다. 레코드에 바늘을 올려놓는 순간, 미세한 잡음이 섞인 음악은 공간을 채운다. 음악이 흘러나오며 공기 중에 층층이 쌓인 아날로그 감성은 바쁜 현대인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넨다.

음악이 재생되면 눈을 지그시 감는 사람, 임진강의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 책을 읽

는 사람 등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몰입한다. 이곳은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독서하기에도 좋은데, 어렵고 무거운 책보다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한 권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입장료는 2만 원이며, 시간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다. 커피나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이는 오직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려는 공간의 철학을 반영한다.

이 음악에 이런 사연이?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린다.
물론 듣는 사람의 감성과
이야기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화를
알게 되면 감상할 때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떼창을 유도하고 싶어서

1977년 영국의 스탠포드에서 콘서트를 연 록그룹 퀸(Queen). 콘서트가 끝나고 멤버들이 감동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무대를 내려가는 멤버들을 향해 관객들이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부른 것. 이 곡은 1945년에 나온 노래로, 60년대에 인기를 끌고 지금은 영국의 축구팀 리버풀의 응원가로 유명하다.

여기에 크게 감동한 퀸 멤버 브라이언 메이는 '우리가 관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곡을 만들자'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관객 참여를 이끌지 고민하던 그는 불현듯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전설의 곡이 탄생한다. 'We will rock you'.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보컬 프레디 머큐리도 자신만의 관객 참여형 곡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 그 이상의 전설이 된 'We are the champions'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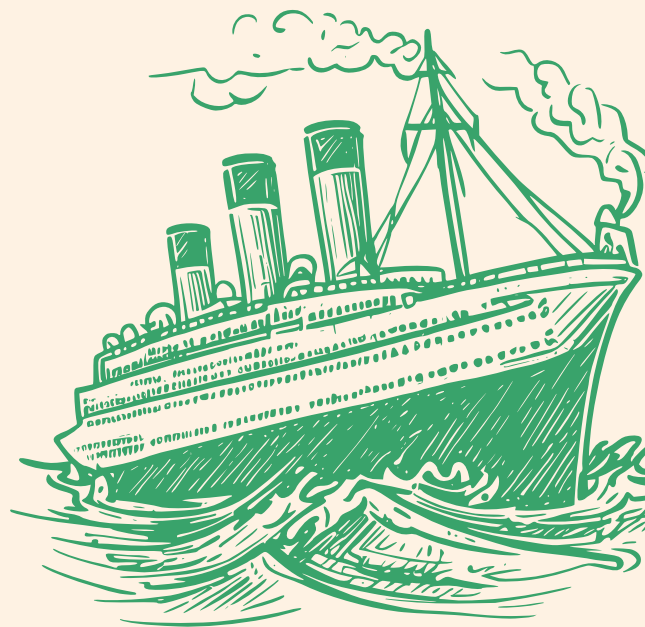


그대로 버렸으면 어쩔 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그중에서도 유령의 테마곡인 'The music of the night'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멜로디로 깊은 인상을 남긴 곡이다. 사실 이 곡은 웨버가 과거에 작업했던 다른 곡에서 가져온 멜로디를 기반으로 한다. 웨버는 1970년대 초반에 영화 '오페라의 유령'을 코믹 버전으로 만들 계획이었고, 당시 작곡했던 곡 중 하나가 바로 이 멜로디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무산되어 빛을 보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진지한 버전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구상하며 여주인공 크리스틴과 유령의 관계를 표현할 음악을 찾던 중 이 오래된 멜로디가 유령의 신비롭고 유혹적인 면모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웨버는 멜로디를 재작업하고 찰스 하트가 유령의 어두운 매력을 담은 가사를 붙여 'The music of the night'가 탄생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OST 'The music of the night'



영화 타이타닉 OST 'My heart will g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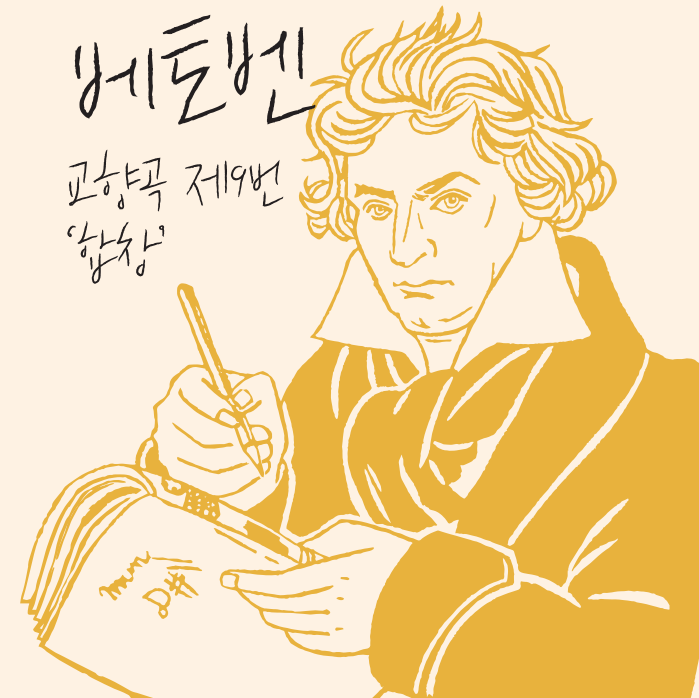
감독이 반대해도 일단 GO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이 영화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은 감독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기적적으로 탄생했다. 당시 카메론 감독은 영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이유로 엔딩곡, 주제곡을 넣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러나 작곡가 제임스 호너는 영화의 감동을 마무리할 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여 감독 몰래 작사가 윌 제닝스와 함께 곡을 쓰고, 캐나다의 가수 셀린 디온에게 데모 테이프를 보냈다. 이미 수많은 영화 OST를 불렀던 그녀는 거절했으나 단 한 번의 녹음 시도를 했고, 이 때 녹음된 데모 버전이 그대로 최종 OST에 사용될 정도로 완벽했다. 호너는 이 데모 테이프를 카메론 감독에게 들려줬고, 그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리고 이 곡은 영화의 상징이 됐을 뿐 아니라,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며 영화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이 되었다.

아름답고 비극적인 순간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은 마지막 악장에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사용해 합창과 솔로 가수를 등장시켰다. 이는 교향곡 역사상 전례 없는 시도였다. 베토벤은 20대 초반부터 '환희의 송가'를 곡에 붙일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 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겼다. 거의 30년에 걸쳐 구상한 끝에 그는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했다.

1824년 5월 7일 빈에서 초연되었을 때, 베토벤은 지휘대에 섰지만 귀가 들리지 않아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알토 가수였던 캐롤라인 웅거가 그를 돌려세우자 비로소 청중의 열광적인 환호와 기립을 보게 되었다. 이 장면은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환희'

지난 4월 2일 서부발전 태안 본사에서 제24주년 사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경영진과 노동조합, 본사 직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태안, 서인천, 평택, 군산, 김포 등 각 사업소 직원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며 기쁨을 나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미래를 다짐했던 뜻깊은 현장을 소개한다.

서부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시간



제24주년
사창립 기념식

서부발전의

자랑스러운 얼굴들



본격적인 기념식은 서부인상 시상으로 시작되었다. 서부인상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경영 목표 달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의 수상자는 태안발전본부 이정호 부장이다. 이정호 부장은 태안 3,4호기 건설과 시운전에 참여하여 500메가와트 표준화력 설비의 안정적 도입에 기여했으며 2013년도에는 국가품질명장

에 선정되는 등 진취적인 자세로 혁신 활동에 앞장섰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던 어려운 시기에 라오스 세남노이 발전소장으로 파견되어 현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8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회사 수익 창출에도 큰 공을 세웠다. 시상을 위해 이정호 부장이 무대로 올라서자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이 영광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글로벌 톱 티어가 되도록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걱정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면 그 기쁨의 결과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정호 부장이 무대에서 내려간 다음, 모범직원상 시상이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는 전사 총 44명이며, 시상은 본사 수상자 중 9명에 대해 진행되었다.

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걱정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면 그 기쁨의 결과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정호 부장이 무대에서 내려간 다음, 모범직원상 시상이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는 전사 총 44명이며, 시상은 본사 수상자 중 9명에 대해 진행되었다.



거친 풍랑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사창립 24주년을 기념하여 이정복 사장이 모두를 대표하여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전했다. 이정복 사장은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서부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는 의미에서 안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합심,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역량 집중,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업 기반의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 등 네 가지를 강조했다. 이정복 사장은 기념사 말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의 파도는 분명 과거보다 더 높고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파도가 능숙한 항해사를 만든다는 조언처럼 우리는 변화의 파도를 오르내리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동료들과 함께 도우며 풍랑을 헤쳐 나가도록 합시다”라며 전 직원들에게 힘을 모아 극복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은 태안 본사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텐텐 프로젝트’ 착수 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이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태안군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려는 서부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협력 정원 개장식, 가정의 달 문화 한마당, 아카데미 개최, 에너지 포럼 주간 운영, Weepy 여름캠프, 뮤직 페스티벌, 10주년 기념식, 서부공감 플리마켓, 천리포수목원 특별전시회, 사회적경제 체험 박람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서부발전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기기업으로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상생과 화합이 꽃 피는

태안애(愛):숲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본사 정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리포수목원 협력 정원 ‘태안애(愛):숲’ 개장식을 위해서다. 태안애(愛):숲은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에 내려온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 한국의 대표 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과 협업을 조성했으며, 태안군민, 서부발전 가족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부원장은 “태안애(愛):숲이 상생과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협력 정원을 거닐며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힐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정원의 취지와 앞으로의 포부도 함께 밝히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창호 부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정원 제막식과 복토 행사가 열렸다. 복토 행사는 ‘영원한 행복’을 뜻하는 배롱나무 앞에서 진행되었다. 태안애(愛):숲을 방문하는 태안군민, 서부발전 가족의 삶에 행복이 가득할 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서부발전의 100년, 주민들과의 상생, 본사 이전 10주년. 이 세 가지를 담은 이번 24주년 사창립 기념식은 서부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 정확한 이정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듯, 서부발전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날 세운 새로운 이정표를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승진형 상향보직제란? —



승진을 희망하는 직원이 지원한 직무에 임시로 배치되어 차장 대행 업무를 3개월간 수행하면 승진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차장 인턴제다. 기존 상향보직제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석이 생기면 임시로 보직을 수행한 후 원래 보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승진형 상향보직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스스로 원하면 승진까지 이어진다.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우선 연보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상위 직급 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업무를 해보고 스스로 승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도입하였다.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통해 사내에 유연한 승진 문화가 확립되고 간부급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승진형 상향보직제의 장점은? —



기존에는 승진 시 회사에서 임의로 부서 배치를 하지만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통해 원하는 보직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승진, 망설이고 있다면 ‘승진형 상향보직제’에 도전해봐~!

승진은 기쁨이자 부담이기도 하다.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자긍심과 함께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MZ세대 사이에 ‘연보상 현상’이 만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보상 현상’이란 승진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일컫는 신조어다. 서부발전은 최근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자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도입하였다.



인재경영처 인재육성부 장현민 부장

승진형 상향보직제는 스스로 원하는 직무에 지원할 수 있고 학력 및 경력에 상관없이 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는 직무 중심 인사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번 제도를 통해 고졸과 대졸, 30대부터 50대까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다양한 적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선발된 직원들은 지원한 부서에서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보직에 맞는 인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통해 배경이나 조건보다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실 이수연 차장

저는 이번 승진형 상향보직제를 통해 홍보실에 지원해 현재 근무 중입니다. 기존 승진제도는 실무시험이나 보고서 작성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요. 승진형 상향보직제는 그동안 했던 업무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입사 직후 4개월 정도 홍보실에서 업무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새로운 업무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홍보실 업무를 좀 더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여 직무와 직급에 맞는 업무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발전본부 3발전처 계측제어부 정동원 차장

승진형 상향보직제는 원하는 직무에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직무에 지원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으로 적응이 빨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 또한 현 부서를 지원하면서 그동안 근무했던 계측제어부에서의 업무 경험과 발전부의 설비 운영 경험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시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관리자의 책임감을 갖고 업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태안 10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안정적으로 준공하여 설비안정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승진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승진형 상향보직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K-가스터빈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역들을 응원합니다!



영상 확인은
여기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가스터빈 실증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 에너지 역사에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김포발전본부와 그 선두에 서 있는 기계부. 수년간 이들이 뜨겁게 흘려온 땀방울은 국가 에너지 기술 자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의 노고를 응원하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고자 깜짝 커피차 이벤트를 열었다. “잘하고 있다!”, “잠깐 쉬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에 나섰다.



**커피차 이벤트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요.
커피와 도넛 맛있게 먹고
안전 또 안전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계부 파이팅!**



**가스터빈 기술 자립의
최전선에 서 있는 김포발전본부**
오랜 시간 가스터빈 기술은 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의 전유물이었고, 우리 또한 그 기술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이러한 한계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 발전 공기업 중 유일하게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라는 국가적 도전에 나섰다, 마침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술 자립의 문을 열었다. 이 역사적인 기술 자립의 최전선에 바로 김포발전본부가 서 있다. 국내 최초로 국산 가스터빈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김포발전본부는 약 1년간 S1 가스터빈을 안정적으로 운전하며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번의 도전에 나섰다. 출력과 효율이 한층 강화된 상위 기종 S1U의 설치를 본격 화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산 가스터빈의 미래 표준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포발전본부가 S1U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발전 산업의 자립과 도약을 상징하는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 가운데 기계부가 있다.

S1U 핵심 설비 해체와 설치를 주도하는 기계부

기계부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배열회수보일러, 냉각탑, 열공급설비 등 발전소 내 다양한 기계 설비들의 유지보수, 정비 계획 수립 및 개선을 담당하고,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번 가스터빈 교체 공사에서도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의 해체 및 설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기계부의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기계 설비 작업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과 정확한 시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기계부를 이끌어 가는 윤광수 부장은 안전은 기계부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진 안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전후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정밀한 작업으로 설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포발전본부를 비롯해 여러 협력사가 긴밀하게 연계해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소통 전략으로 협업 시너지를 끌어 올리고 있는 점 또한 눈에 띈다. 매일 아침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또 SNS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가스터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은 기계부 구성원 간의 끈끈한 화합,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마음 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팀워크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견인하고 있는 기계부. 특히, 신동민 차장의 활약은 구성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며 윤광수 부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동민 차장은 건설 및 시운전 단계에서 공무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맞춰 GT(가스터빈) 차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후에도 현장 안전 확보, 공정 관리, 설비 신뢰성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민 차장의 열정과 책임감이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윤광수 부장의 말에 기계부 구성원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응원에 힘입어 더 안전하게 더 역동적으로 나아갈 것

김포발전본부와 기계부를 응원하기 위해 준비된 커피차가 본부에 들어서니 지나가던 구성원마다 “언제 오픈해요?”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기계부 구성원들 역시 커피차를 직접 보자 환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아메리카노, 밀크티, 청포도 에이드 등 취향에 맞는 음료를 마시고 달콤한 도넛을 한입 가득 베어 물며 여유를 즐겼다. “맛있네!” “날씨도 좋고, 밀크티도 시원하고, 좋아요!” 등 즐겁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출근 후 출출해질 무렵 맛본 간식이었기에 더 꿀맛이다. 기계부 구성원들은 오랜만에 모든 부서원이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 더 좋다며



기분 좋은 미소를 보였다. 현장과 사무실에서 따로 또 같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만큼 이 짧은 휴식이 서로를 격려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병혁 가스안전관리원은 “커피차 이벤트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요. 커피와 도넛 맛있게 먹고 안전 또 안전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계부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최동원 차장 또한 “매일 업무만 하다 커피차 이벤트가 진행되니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습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윤광수 부장은 “커피차 응원이 힘이 되네요. 앞으로 또 시운전이라는 큰 공정 단계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잘 해내 한해 마무리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기계부의 목표를 물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가스터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축적한 가스터빈 시공 및 운전 노하우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K-가스터빈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고즈넉함과 생동감이 공존하는 작은 서점



서부발전 공주건설본부에 있는 공주에는 책과 커피,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독립서점 블루프린트북이 있다. 1층과 2층은 카페로, 3층은 작은서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제민천변 바로 옆에 자리해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독서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책과 커피를 사랑한다면 꼭 방문해 보자.

프론트와 로비로 구성된 1층

오전의 제민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국적인 나무 패널로 장식된 독특한 외관의 3층짜리 건물에서 풍겨오는 냄새다. 11시 30분이 가까운 시간, 블루프린트북 1층 카페에서 크로아상번이 구워지고 있다. 옛 가옥을 보존한 로비와 유럽 카페가 부럽지 않은 테라스석에서 고소한 풍미의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3층 서점을 갈 때는 이곳 프론트에서 미리 말을 한 후 이용 가능하다.



제민천이 시원하게 보이는 통창을 전경으로 실 수 있는 2층

책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감각적인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미드센추리 디자인의 소파가 아기자기하게 놓여 있는 2층. 우드 인테리어에 오렌지빛 조명이 아담하고 아늑한 공간을 따뜻하게 채운다. 넓은 창으로 바라보는 제민천은 고즈넉함과 생동감이 공존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개인 서재에 초대받은 듯한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3층

블루프린트북의 진짜 매력은 이곳이 아닐까. 문학부터 인문학, 매거진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책장을 채웠다. 꼭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 야외에 자리를 잡을 수도, 아늑함 그 자체인 다락에 앉아 독서를 즐길 수도 있다.





태안음악동호회 YK밴드

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해질녘 어스름이 마냥 기분을 들뜨게 하는
봄날 저녁이다. 수많은 봄날 중 오늘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서부발전
사내밴드 '태안음악동호회 YK밴드'의 정기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서늘함과 싱그러운 공기,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은 봄날이
있을까. 지난 5월 8일 태안발전본부 사택 내 청심관 강당에서 열린 서부발전
사내밴드 '태안음악동호회 YK밴드'의 정기공연 현장을 소개한다.

우리는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락스타

태안발전본부 사내밴드 'YK밴드'를 소개합니다!

태안발전본부 사내밴드 YK밴드의 정기공연이 있는 날이다. 한낮의 따사
로운 봄 햇살이 사그라들고 땅거미가 질 무렵, YK밴드 멤버들이 공연 리
허설을 위해 태안발전본부 사택 내 청심관에 모였다. 2022년도에 처음
공연을 한 이후 네 번째 정기공연이다. 핵심 멤버들이 다른 사업소로 이동
하게 되면서 작년에는 정기공연을 하지 못했다.

사실 YK밴드의 탄생은 좀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에 태안음악동
호회는 색소폰을 연주하는 직원들이 창립해 운영하다가 활동하던 멤버들
이 다른 사업소로 이동하게 되면서 젊은 직원들이 밴드 형태로 바뀌 음악
동호회를 이끌게 되었다. 현재 YK밴드의 총 인원은 20명으로 오늘 공연
에는 14명의 멤버가 A와 B팀으로 나뉘어 총 10곡을 공연한다.

"저에겐 첫 무대예요. 2023년도에 입사해서 2024년 8월에 밴드에 들어
왔어요. 그저 드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드럼을 전
혀 치지 못했었는데 밴드에 들어와 차근차근 배워서 지금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무대 경험이 없어서 떨리기보다 기대감이 더 커요. 오늘 멋진 무
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안발전본부 연료운영처 연료설비3부 황정하 사원은 첫무대에 대한 각
오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사 내에서 하는 공연은
음향이나 조명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항상 아쉬워요.
하지만 저희 YK밴드의
실력이 결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공연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관객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흥겨운 공연

공연 시작 시간이 되자 조명이 꺼지고 시끌시끌하던 객석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밝히고 강당 가득 웅장한 사운드가 시작되며 멤버들이 멋지게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곡은 박혜경의 '안녕! 마치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듯한 노랫말과 보컬의 청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무대다.

"이번 공연에는 관객들이 알만한 곡들로 구성했습니다. 지난 공연에서 모르는 곡들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부르고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의 당부처럼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혁오의 '툼보이', 건반과 보컬의 호흡이 매력적인 박효신의 '숨', 꾸준히 차트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우즈의 'Drowning' 등 관객들이 함께 부르며 빠져들 수 있는 대중적인 곡들이 공연 리스트에 올랐다.

한 곡 한 곡 곡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직접 만든 플래카드까지 등장해 멤버들을 응원했다.

바쁜 업무 탓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공연을 앞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연습한 덕분인지 실수 없이 조화로운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팀워크도 중요해요. 밴드 멤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 꾸준히 합주 연습을 하고 시간 맞춰 단합대회를 가기도 해요. 작년에는 가평에 가서 물놀이를 했었는데요. 서로 친해지면 밴드 연주할 때 호흡을 맞추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총무를 이어받은 태안발전본부 3발전처 화공설비부 이형일 사원이 YK밴드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더 큰 무대를 향하여

관객들은 빠른 멜로디의 노래가 나올 때에는 몸을 들썩이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서정적인 노래가 나오면 보컬의 목소리와 가사에 집중하며 힐링했다. 준비한 모든 곡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지 못했고 앵콜을 외쳤다. 멤버들은 빅뱅의 'Last Dance'를 앵콜곡으로 선택했고 공연에 참여한 멤버들이 모두 함께 무대에 올라 마지막을 장식했다.

"저희가 직접 음향과 조명까지 모두 하다보니까 공연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23년 서산 공연 때에는 전문



음악공연장을 빌려 공연을 해서 좀 더 퀄리티가 좋았는데요. 이렇게 회사 내에서 하는 공연은 음향이나 조명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항상 아쉬워요. 하지만 저희 YK밴드의 실력이 결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공연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관객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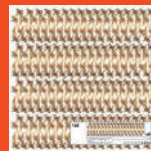
YK밴드의 회장을 맡고 있는 태안발전본부 2발전처 전기부 정명성 사원이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 자리한 관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 무대에 모인 멤버들이 관객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오늘을 기념했다. 멤버들은 가장 뿌듯하고 감개무량한 순간이라며 활짝 웃었다. YK밴드는 업무가 바쁘고 교대 근무도 많아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사내 행사 및 외부 행사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다며 더 큰 무대를 꿈꿨다.



▲ YK밴드 공연 영상은
여기로!

태안음악동호회 YK밴드가 추천하는 드라이브 음악 베스트 3



브라운 아이드 소울
♪ Brown City



하현상
♪ 하이웨이



넬
♪ Still Sunset

한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저물고 어스름이 깔리기 전 거리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노랫말이 매력적이에요.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도시의 매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끔 한밤중에 차가 많지 않은 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현상의 하이웨이는 차가운 밤공기를 느끼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무척 어울릴 것 같아요.

퇴근길 운전하면서 들으면 해질녘 풍경이랑 맞물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멜로디도 좋고 기타소리도 무척 매력적입니다.



올여름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거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피가 알려주는 여름철 홍수, 과학으로 똑똑하게 대비하는 법!

여름이 왔다!

**장마철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합니다!**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핵심 5가지!**

- ☑ 과학기술을 이용해 홍수 위험을 미리 알아낸다!
- ☑ 위험 정보는 문자, 앱 등으로 일제히 전파한다!
- ☑ 홍수에 약한 지역은 미리 점검한다!
- ☑ 위험 지역은 철저하게 관리한다!
- ☑ 홍수기에는 댐 운영과 훈련 강화로 총력 대응!

**기후위기에 맞서는
여름철 홍수 대응, 어떻게 달라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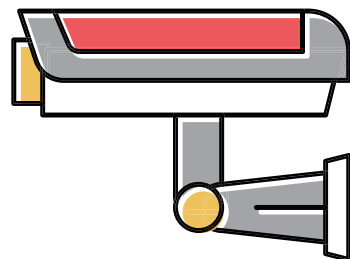


① 기술로 앞서간다! 과학기술 활용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시범 도입
시각적 입체 공간 정보 확인 가능



인공지능(A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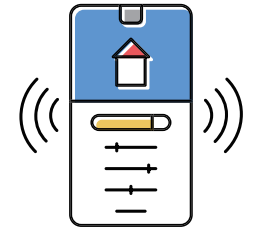


② 위험은 더 넓게, 더 빠르게 알린다!

차량 내비게이션, 안전안내문자(CBS)
전국 933곳 수위관측소 기반



‘홍수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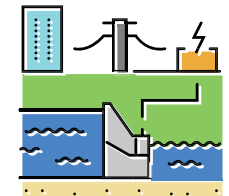
③ 사전 준비부터 대응까지 빈틈없이!

홍수 위험 예상 지역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홍수위험지도’를 오픈 API로 전면 공개



④ 위험 요소 관리는 철저하게!

‘하천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 관리 강화
★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신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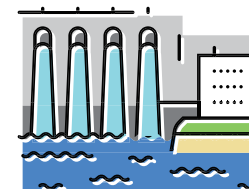
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총력 대응!

전국 다목적 댐 20곳 방류량 증가(총 68.1억㎥)

★ 기존 대비 약 3배 용량 확보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대비 군남댐 방류량 조절

★ 최대 15시간의 대피시간 확보



기후위기로 호우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홍수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5월 15일~10월 15일은 ‘자연 재난 대책 기간’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WP 시너지데이' 개최 협력과 상생으로 여는 동반 성장의 길



WP Synergy Day

서부발전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장

'WP 시너지데이'는 서부발전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 협력 행사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규석 사업부사장을 비롯해 협력 중소기업 50개 사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속속 도착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행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서규석 사업부사장은 환영사에서 "서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동반 성장은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되며, 견고한 협력이 있을 때

지난 5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 'WP 시너지데이'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부발전과 중소기업이 '동반 상생'이라는 가치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산업 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상생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WP 시너지데이'가 상생 협력을 더욱 넓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우리 다 같이!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

행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갔다. 서부발전은 ▲혁신기업 육성 ▲기술 자립 ▲판로 개척 ▲안전·품질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전략 방향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을 핵심 테마로 삼고, 기술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지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지속 성장 개발'이라는 뜻을 담은 '기지가'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무지개를 피워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이 플랫폼은 '소통 혁신', '판로 개척', '기술 개발', '금융 복지' 등 4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이날 발표자는 공동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 발전 정보 개방·공유, 에너지 효율화 사업, 특허 무료 나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며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소규모 간담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기술보호 제도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오갔으며,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과 지원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앞으로 서부발전은 '찾아가는 기업응답센터' 등 현장 중심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 에너지 전환 협력 등 미래 비전 공유형 관계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서부발전의 행보는 앞으로도 힘차게 이어질 것이다.



WP Synergy Day

조용한 환경지킴이

몽산포 바다에 가다

지구 전체의 동식물 80%가
바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다양한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죠.
이런 바다가 쓰레기와
기후위기로 많이 아픕니다.
바다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서부발전 직원들과
태안군민이 힘을 모아
몽산포해수욕장에 모여
환경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쓰레기 담은 자루가 가볍습니다.
활동이 마무리 되는 시간까지 이대로
꼭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누군가 저지른 비양심의
흔적. 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지켜줄 거예요!



바람과는 달리 자루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 마음이 무겁지만
힘을 내야죠!



이런 걸 투기하다니!
부피가 큰 쓰레기는
다같이 모아 차에
싣어 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마~



3시간 동안 함께 한 환경정화활동. 한결 말끔해진
몽산포해변을 보며 가벼운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이 모습으로 만나자~





1 사회변화 선도한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3월 11일 태안 본사에서 제6회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인지메이커로는 박상원 늘품가치 대표와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김영록 락앤런 대표, 김현진 하티웍스 대표, 박찬우 플레닛 주민센터 대표가 선정됐다. 이정복 사장은 “체인지메이커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실천하는 주인공”이라며 “서부발전은 보다 밝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에너지전환 연착륙 위해 지자체·협력사와 공동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3월 25일 태안 본사에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 공동 대응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다짐 행사는 서부발전과 태안군, 고용노동부, 환경연구원의 주제발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 공동 대응 결의문 서명,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5개 협력사 대표는 협력사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무탄소 에너지사업을 위한 협력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선서했다.



3 여수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구매 계약

한국서부발전은 3월 28일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여수복합 주기기 구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호응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정복 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며 “한국형 가스터빈 개발과 안정 운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한 두산에너지빌리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4 에너지 전환 일선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

한국서부발전은 4월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최원철 공주시장,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안호 충남도청 산업경제실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부발전은 남공주일반산업단지 10만3,000㎡ 부지에 오는 2027년 4월까지 태안발전본부 2호기를 대체할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다. 이는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5 우수 협력기업 방문해 ‘동반상생 명예의 전당’ 헌액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4월 28일 주식회사 로아스를 방문해 제1호 ‘동반상생 명예의 전당’ 임명 행사를 가졌다. 로아스는 2020년부터 서부발전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미세 이상 소음을 감지하고 관련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인공지능 음향탐지 로봇’을 개발했다. 한편, 동반상생 명예의 전당은 기술력, 성장성 등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협력기업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상생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6 ‘군산 국가산업단지 메가스테이션’ 착공

한국서부발전은 4월 29일 군산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메가스테이션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서부발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메가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메가스테이션은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시설, 미디어 아트, 무인카페·원격근무 공간 등이 융합된 스마트 복합공간으로 군산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의 핵심이다.



7 지진 피해 네팔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한국서부발전은 4월 2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노씨에스알, NH투자증권, 리저브카본, 현지 지방자치단체, 네팔건설협회 등과 저탄소 벽돌 제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과 협약 참여사는 네팔에 20개 이상의 저탄소 벽돌 제조설비를 설치·운영하고 10년간 약 9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8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태양광, ‘올해의 프로젝트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은 4월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아이제이(IJ) 글로벌 어워즈 2024’에서 아즈반 1,5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 사업 주주 성과로 ‘중동·북아프리카지역(MENA) 에너지전환 부문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 해 동안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한 프로젝트에 주는 상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오만 마나(Manah) 5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이어 같은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9 가정의 달 복지 사각지대 찾아 따뜻한 동행

한국서부발전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노인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충남 태안읍과 안면읍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후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부발전 임직원은 복지관을 찾은 15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태안 농가에서 구매한 3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2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농산물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10 나토 주관 ‘락드실즈 2025’ 훈련 참여

서부발전은 5월 5일부터 9일까지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진행된 나토 주관 ‘락드실즈(Locked Shields) 2025’에 참여했다. 락드실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으로, 한국에서는 서부발전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민·군 47개 기관 소속 전문가 17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캐나다와 연합했으며, 서부발전은 서버 관리, 주요 기반시설 이상 여부 확인 등의 훈련 상황에 맞는 해킹 공격 방어 역할을 수행했다.



11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조직문화 혁신 위해 팔 걷어

한국서부발전은 5월 12일 태안 본사에서 ‘조직 내 슬러지(Sludge) 제거’ 행사를 개최했다. 슬러지는 조직문화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사내 복잡한 업무절차, 불합리한 관행 등을 뜻한다. 행사는 ‘조직문화와 리더십’ 주제의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슬러지 요인 발굴을 위한 경영진과 간부들의 열띤 토론 후 이에 대한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서부발전은 슬러지 제거 과제로 결재·보고의 간소화, 수직적 의사소통 개선, 불합리한 사내 관행·규범 점검 등을 제시했다.



12 ‘CEO-직원 공감 토크 콘서트’ 정례화

한국서부발전은 5월 20일 태안 본사에서 ‘CEO-직원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토론 중심의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회사의 경영 현황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설명 시간과 더불어 사업소 직원들이 미래 성장 사업 실무부서를 방문해 사업계획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정복 사장은 “직원들의 생각이 모든 사업소에 공유되고 공감대 형성의 바탕이 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3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국형 수소 전소 발전 기술협력 업무협약

한국서부발전은 5월 22일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국형 90MW 급 중형 수소 전소 터빈의 개발·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국산 중형 수소 전소 터빈 기술 개발·실증 협력’, ‘한국형 수소 전소 발전소 모델 구축·신규발전소 적용’, ‘국산 기자재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협력 기반 수출형 터빈 모델 공동 개발과 해외 건설·유지보수(O&M) 시장 공동 진출’ 등이다.



14 세계 최초로 ‘수소 활용 온실가스 분해 시스템’ 개발

한국서부발전은 5월 29일 경기도 의왕 일대 실증부지에서 한전, 철도공단, 경기도와 ‘수소 활용 육불화황(SF₆) 분해 시스템 준공식’과 ‘육불화황 분해설비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준공된 육불화황 분해설비는 수소를 이용해 육불화황을 99% 이상 분해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국내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15 디지털 변환 주도할 ‘DX전략위원회’ 출범

한국서부발전은 5월 30일 ‘코웨포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코웨포 디지털 변환 전략위원회는 디지털 변환 전략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와 서부발전 경영진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업무혁신,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ICT 역량 강화로 업무 전문성 확보 등 4대 중장기 정보화 추진 전략 실행을 위한 자문을 얻는다.



16 필리핀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본격화

한국서부발전은 6월 2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우수 협력 중소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중점지원기업 등 13개 기업이 참여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시장개척단은 필리핀 전력공사를 방문해 필리핀 정부의 전력 인프라 투자 계획과 민관협력 수요에 대해 청취했다. 아울러 개척단은 아시아개발은행(ADB), 현지 에너지 업계와의 기술·정책 교류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서부공감> 독자후기 이벤트

어머! 독자후기를 남기니 선물이 왔네!



<서부공감> 6월호 잘 보셨나요?
<서부공감>은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에너지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따끈따끈한 독자 후기를 기다립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열 분에게 커피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후기 남기러 가볼까요?

참여기간
7월 11일(금)까지

참여는 여기로!



태안 일타강사 서부발전픽!

감다살 여행코스 다 풀었수다

태안 투어에 나선 민경장군!
세계튠립꽃박람회, 꽃지해수욕장,
소나무길, 커피인터뷰 파도리,
모항항 수산물직판장까지!
태안의 핵심만 모아서 다녀왔다죠?
서부 간 김에 태안일주~
하이라이트 짚로 소개합니다.



서부 간 김에 태안일주 EP.02



서부 간 김에
태안일주
EP.01도 있어요!

